

사례보고

## 민간대통령기록관 김대중도서관 기록정보서비스 현황과 과제

###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of the Kim Dae-jung Presidential Library's Private Presidential Archives

장윤서(Yunseo Jang)

E-mail: yunseo5990@yonsei.ac.kr

김대중도서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논문접수 2022-08-16

최초심사 2022-08-16

게재확정 2022-08-19

ORCID

Yunseo Jang   
<https://orcid.org/0000-0002-0875-5593>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초 록

김대중도서관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으로 25만여 점의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민간대통령기록관이다. 주로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생애, 근현대사, 민주화 등에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사료사업, 전시사업,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민간대통령기록관은 기념재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김대중도서관은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기록물을 통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교육기관의 부속기관이며 민간대통령기록관인 김대중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ABSTRACT

The Kim Dae-jung Library is Asia's first presidential library and is a private presidential archive with over 250,000 historical materials. It mainly collects records related to the life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democratization. While most of the private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are operated by memorial foundations, the Kim Dae-jung Library is unique in that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perates it. Accordingly, it aims to take an educational role in history and democracy based on records, providing free research space for researchers, and supporting research through records. This report introduces examples of the Kim Dae-jung Library's representativ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an affiliated institu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presidential archives, and presents the future task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Keywords:** 김대중 대통령,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관, 민주주의  
President Kim Dae-jung, Academic User Services,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Archives, Democracy

## 1. 민간대통령기록관 김대중도서관

대통령기록물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관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치적, 역사적 증거로 큰 영향력을 가지며 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의 수집, 보존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역사 및 민주주의 교육, 연구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기록정보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대통령 기록물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기록관은 세종에 위치한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기념재단,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민간대통령기록관이 있다. 민간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다르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인프라 구축 등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받으며 이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기록관을 운영한다. 이처럼 근거로 하는 법령과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은 각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고 서비스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민간대통령기록관은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의 연계 서비스가 어려운 상태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전직 대통령(이하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 때 기록물을 찾고자 한다면 통합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재임 전과 퇴임 후의 기록물의 경우 김대중도서관을 찾아야 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김대중도서관, 김영삼도서관 세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마저도 각 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 어떤 기관에 어떤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중요 인물의 전 생애를 통합적으로 살피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통합검색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기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김대중도서관의 기록정보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간대통령기록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대통령기록관인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소유하던 아태재단 건물, 도서, 개인기록물 및 노벨평화상 상금을 연세대학교 측에 기증하며 설립되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근현대사, 민주화 등에 관련한 기록물이 수집되었고 이를 관리 및 활용하여 전시사업,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김대중도서관 비전과 역할  
(출처: <https://www.kdlibrary.org/>)

## 2. 김대중도서관의 기록물 구성과 기록정보서비스

### 2.1 김대중도서관의 기록물 구성

김대중도서관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이면서 기록물에 특화된 기관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소장한 건물, 기록물, 도서 등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이후 대부분의 도서들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 교육, 연구, 대외협력 등의 중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중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기증을 통한 수집기록물과 직접 생산한 생산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 수집기록물은 김대중 대통령의 저작물, 대통령 행적에 관한 모든 유형의 자료, 대통령이 소속 또는 활동한 정당 및 단체가 생산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의 사적 기록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화 운동 시절 김대중과 이회호의 뜻으로 쓴 옥중서신과 노벨 평화상 수상에 관련한 기록물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 김대중도서관 건물 집무실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기록물이 생기게 되었고 대표적인 예로 구술기록을 들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27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대중도서관은 2003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 기록물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재임기간 기록물을 통합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도서관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전, 퇴임 이후 기록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민주화와 통일에 관한 기록물이 포함된다. 현재 지속적인 기록물 수집 및 생산으로 25만 여점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 2.2 김대중도서관의 기록정보서비스

김대중도서관은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중도서관의 가장 중심적인 이용자 집단은 정치학, 역사학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정보 이용자이다. 기록학적 측면에서 이용자를 세분화하였을 때 학술 정보 이용자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기록물을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비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평화 실천, 빈곤 퇴치의 산 교육장을 목표로 하였던 김대중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교육기관 부속 도서관으로의 기능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도서관은 사적 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인력 문제 등으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비해 공개된 기록물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기록물을 온 오프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도서관의 대표 콘텐츠로는 김대중 전집 콘텐츠, 김대중 디지털 연보, 사료 해제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또한 통일, 평화, 민주화 등에 관한 학술회의를 매해 개최하여 학술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학술 정보 사용자들의 내부 커뮤니티에 접근하여 기록물의 활용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김대중도서관이라는 기관명 때문에 도서의 대출, 반납, 열람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김대중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어떤 기관인지 인식을 심어주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전시와 사료 해제, 언론 공개, 뉴스레터 발간을 진행하여 소장 기록물 소개와 잠재적 이용자 발굴, 기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2.2.1 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 속 기록 콘텐츠

2019년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 전 생애에 대한 김대중 전집 작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 8월 총 3,265건, 17,500페이지에 달하는 김대중 전집의 원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전집 콘텐츠는 기록물 정보, 기록물 원문 텍스트, 동일 등록본(동일 내용으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기록물), 관련 연보(해당 일자 연보 행적 링크 연결), 관련 콘텐츠 추천으로 구성된다. 1건 당 최대 32개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시대, 언어, 저작 유형 등 다양한 검색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 기록물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속 전집 콘텐츠를 통해 원문 텍스트를 확인한 후 기록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연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록물 정보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도서관에 요청하면 내부 프로세스를 거친 후 기록물의 디지털 파일을 제공 받거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림 2〉 김대중 전집 콘텐츠  
(출처: <https://www.kdlibrary.org/>)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연대기인 김대중 연보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1924년부터 2009년까지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 한국의 현대사와 정치사를 살펴볼 수 있다. 김대중 디지털 연보에서 17,649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생과 성장, 청년 사업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유신시대 1 동경 납치 사건, 유신시대 2 명동 3.1 민주구국선언, 광주민주화운동과 사형선고, 미국 망명생활, 민주협 활동 대통령 출마, 평화민주당 시절, 15대 대통령 당선, 제 15대 대통령 시절로 크게 분류하였고 년, 월, 일 검색과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찾고자 하는 행적과 관련한 사진, 문서 등의 기록물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기록물의 활용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매달 하나 이상의 주요 기록물을 특정 주제별, 기증자별로 공개 및 해제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록물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성격과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공개의 의미를 부여하여 정돈된 내용과 연관 자료를 함께 게시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풍부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특정 이슈가 있는 일자에 맞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해당 콘텐츠는 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도자료로 제작되어 언론에 동시에 공개된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기록물과 기관 자체에 대한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

### 2.2.2 학술회의 개최

김대중도서관은 통일, 평화, 민주화 등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 단체나 각 분야의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학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와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학술회의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미얀마 연대-협력 긴급회의’ 등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학술회의를 통해서 사회의 지적 능력 증진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 정보 이용자의 내부 커뮤니티에 접근하여 도서관의 입지를 확충하고 기관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 2.2.3 온/오프라인 전시

민간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전시의 제작과 구성에 있어 통합대통령기록관 보다 개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민간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록 콘텐츠 제작과 전시 구성을 모색하는데 통합대통령기록관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이영지 외, 2018).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사상, 정책에 관한 기록물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구성하여 상설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인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현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잠재적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기록물과 기록물 관리를 널리 알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상설전시는 김대중 전체 생애 흐름으로 관람할 수 있는 1층 전시실과 2층 특별 전시실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단체 관람의 경우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시 관람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에 2019년부터 전시를 예약제로 운영하였고 정보의 확장성과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는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전시는 공간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Panorama VR 형식으로 구축되었으며 특정 위치에서 기록물 관련 영상이나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김대중도서관 온라인 전시관  
(출처: <https://www.kdjllibrary.org/>)

## 3. 앞으로의 과제

김대중도서관은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도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가 기록물을 활용하였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해당 서비스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용자들은 기록을 이용할 때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광범위한 해석형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고가치의 정리된 자료들을 찾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민간대통령기록관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시설 건립과 아카이브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받았고 이후 대부분의 기관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관의 운영 상황과 사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가 크게 좌우되며 시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록관의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을 우상시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대통령기록관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생산된 기록물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김대중도서관에서 통합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기록의 통합적인 이용과 기록 콘텐츠 제작의 한계를 뜻하며 민간 대통령기록관과 통합대통령기록관의 협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김대중도서관은 고양시,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진, 영상 등 기록물에 대한 제공과 콘텐츠 개발, 운영 자문 등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대통령기록관과 좀 더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대통령기록관 간의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일이며 이후 기록물의 인적 교류, 온라인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대중도서관 (2022). 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 출처: <https://www.kdjlibrary.org/>  
이영지, 오계윤, 정상준, 윤은하 (2018).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현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69-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069>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Dae-jung Library (2022). Kim Dae-jung Library website. Available: <https://www.kdjlibrary.org/>  
Lee, Young-ji, Oh, Gye-yoon, Jung Sang-joon, & Yoon, Eun-ha (201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private presidential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69-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069>